

# 연구개발은 국가의 경쟁력!

### 전북도, 성장잠재력의 원천 연구개발 정책강화 나서 4대 전략 마련·12개 추진과제 발굴·혁신방안 마련

전북도가 전북의 미래발전과 산업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연구개발(R&D) 분야 정책강화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화예술은 국가의 품격이고 연구개발(R&D)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연구개발(R&D) 정책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R&D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대, 프로세스 내실화, 기술사업화 강화를 4대 전략으로 마련하였으며, 상위 R&D 기획·발굴 체계 구축, R&D 실무기구 역량강화, 정부연구기관 복합유치·규모확충, R&D기회 범위 확대 및 품질강화

등 12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R&D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전북도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현행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과거위 산하 6대 연구회를 문화관광, 환경·복지, 건설, 안전 등 R&D 발굴이 부족한 분야까지 확대해 R&D 기획·발굴 범위를 도정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R&D 실무기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R&D 기획·발굴, 사업관리,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R&D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전북과학기술기획기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북도는 도 단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고, 국가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25개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분원 수가 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 성과가 있었다.

또한 R&D사업 발굴에서도 전북도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생명·식품, 탄소융복합소재, 자동차·기계, 바이오융합, 그린에너지 등 농업분야와 혁신성장산업분야의 R&D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북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들러 전북지역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2012년 2771억원에서 2017년 764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5.1%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등 지역 R&D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 2019년 정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았으며, 향후 연구개발 분야 예산 투자액이 2020년 21.4조원, 2022년 24조원까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는 전 실·국이 하나 되어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전북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조정숙 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하반기에 개편,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 발굴·검증 '박차'

### 전북도, 콘텐츠 모니터단 운영

전북도가 14개 시군 지역자원의 특색이 알차게 담긴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 발굴·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콘텐츠 개발을 위해 14개 시군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화·해양·산악 등 권역별 분류와 재구성을 거친 데 이어 2023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그 바탕에는 지난 4월 스카우트, 관광, 청소년,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도·시군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이 있다.

모니터단은 5개의 반으로 나뉘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8개 시군의 17개 과정활동 지원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해왔다.

그 과정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및 의견 제시가 활발히 이루어져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모니터링 일정 및 대상 프로그램은 반별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번(반장 :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커미셔너 이동훈, 5명)의 경우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고창군과 부안군의 잼버리 과정활동 지원을 검증했다.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활동은 8월 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

들어진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은 오는 8월 부안에서 개최되는 제4회 새만금 국제유스캠페리에서 시범운영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3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질 높은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하반기까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14개 시군 특색이 알차게 담긴 2023 잼버리 과정활동을 완성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0월에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앞으로 구성예정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제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올해 5월 전북도 고용률 60.3%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호남지방통계청은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4800가구 중 전북지역 2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8년 2월 자료부터 2017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제작성하게 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열

조정 자료를 보정했다.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0~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했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소급보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했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2019년 5월 전북도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고 취업자는 9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2019년 5월 전라북도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실업자는 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 감소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양파·마늘 등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전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수확시기 집중으로 인한 노임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출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떨어지고 수확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양파, 마늘 등 일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공동수확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공동수확 지원체계 확충사업'은 계약재배 확대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도내 13개 시·군 29개소 지역농협과 통합마케팅조직에 계통 출하하는 2,262농가(1037ha, 2만 7538톤)에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 계약재배한 농가의 농산물 수확을 위하여 지역농협 등이 '농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수확과 동시에 등급별 선별 후 당일 출하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양파의 경우 10%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대상품목을 6품목(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가을배추, 무)에서 마늘 품목을 추가해 7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비율도 60%로 상향조정해서 농업인의 혜택을 늘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공동수확 지원체계 확충 사업을 통하여 참여 농업인에게는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약재배 확대 기반을 통해 유통 거래교섭력 확보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디자인의 내일을 말하다

### 전북도 디자인포럼 성료... 혁신 사례 공유·발전방안 토론

전북도는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도민, 학생, 디자인 관련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2019 전북도 디자인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자인포럼은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국내 디자인분야 전문가 등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국내외 디자인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으로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3회째를 맞는 디자인 포럼

에는 전북도 관계자들을 비롯해 도민, 학생,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도를 위한 디자인 혁신'이라는 주제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국가디자인정책의 역할과 방향 ▲디자인과 양산의 3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는 디자인 주도의 혁신에 주목함에 따라 앞으로 디자인센터에서는 전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디자인 혁신과 관련된 초청연사

들의 강연과 전북디자인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북디자인산업의 발전방안을 각각 기관, 협회,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며,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혁신전략 공유로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인 주도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